

장백산천지

제 375 호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전염병을 피하려면 좋은 처방이 있다

[밍후이왕]무한 전염병이 세차게 몰려오자 사람들은 인심이 흥흥해졌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록 미세하지만 도리어 시시각각 전 세계 인류에게 바이러스의 위력을 보여줬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마치 왕관과 같아 사람들에게 미생물 세계에 관심을 끌게 했다.

미생물은 미세한 생물의 총칭이며 미생물 중의 세포 구조를 여러 가지 세균이라고 부르고 완전한 세포구조가 없는 생물 중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같은 미생물 세계의 세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어느 한 파룬궁 수련생이 무심결에 미생물 실험 중에서 자신의 몸에는 슈퍼 천연항생제가 있고, 이 항생제는 사람에게 해로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황색포도상구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차례 미생물 실험을 했지만, 세균이 보이지 않다.

덕연(德緣)은 1997년에 독일(德國)에서 출생하고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와 함께 파룬궁을 배웠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법리 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용하고, 뽐내지 않으며, 아주 수양이 있고, 품행과 학문이 다 훌륭해 순조롭게 대학 의학전업에 입학했다.

대학교 미생물 수업에서 학생들은 몇개 야가 배양기(Agar Plate, 한천 배지)를 가져 번식하는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학생들은 혈액 야가 배양기(blood agar plate)에 지문을 찍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실험하기로 했다. 그다음 배양기를 배양 상자 속에 넣어 배양할 수 있는 세균과 세균들이 번식하는 수량을 관찰하기로 했다.

며칠 후 덕연은 지문이 있는 배양기를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다. 많은 학우의 배양기에는 뚜렷하게 박테리아가 있었지만 덕연의 배양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미생물 실험은 바로 밖이나 집에서 접촉한 물체로 미생물의 존재를 보는 것이었다. 덕

연은 지폐를 선택했다. 며칠 후, 덕연은 지폐의 접촉 배양기(contact plate)를 보고 더욱 놀랐다. 이 배양기도 너무 깨끗했다. 덕연은 당시 매우 곤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지폐가 특히 더럽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차례 실험의 결과에서 덕연의 지문과 그녀가 접촉한 물건에서 세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세균이 있는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덕연이 연마하는 파룬궁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세균에 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마 세 번째 실험에서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실험에서 마침내 세균을 발견하다

세 번째 미생물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다. 대학 강사는 각 팀의 학생들에게 목 안 혹은 콧속의 점액을 야가 배양기에다 발라 놓으라고 했다. 덕연의 학우들이 목 안의 세균으로 실험한다고 하자 덕연은 어쩔 수 없이 콧속의 세균을 사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학우들은 각자의 야가 배양기를 가져왔다. 배양기 위 종이에 분석 숫자와 각 종류의 세균의 명칭을 적었다. 이번에 덕연의 배양기에는 뚜렷하게 세균 균락이 나타났다. 당시 그녀는 너무 기뻐했다. 그 세균의 이름은 '루그더닌(lugdunin) 포도상구균'이었다.

강사는 덕연의 세균 명칭을 들었을 때 매우 흥분해 하며 이것은 새로 발견된 종류라고 말했다. 이런 세균은 (3면에 계속)



"중공 병독" 전염병은 왜 무한에서 폭발 했는가?

고대 로마와 고대 이집트 역사로부터 볼때의 전염병

확산은 해당 지역의 죄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무한이 도대체 중국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는가?

현재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멸불(滅佛)로서, 하늘만큼 큰 죄악이다.

나쁜 계획을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그 당시 정법위 서기 라간이 었다. 만약 그가 큰일을 저질러 놓고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중공 최고 권력층에 들어갈 수 없고 곧바로 퇴직해야 했다. 그리하여 가장 선량한 단체,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는 파룬궁에 손을 썼다. 1996 년 그는 공안부를 시켜 파룬궁을 깊이 조사했지만, 파룬궁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으며, 공안부의 많은 사람은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다. 퇴직 전의 전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교석은 중앙에 '파룬궁은 국가에 100 가지 리익이 있고 해로운 점은 하나도 없다'라는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주용기총리, 정치협상위원회의 리서 환주석 등도 파룬궁을 지지했다. 그러나 라간은 그대로 퇴직하고

싶지 않아 먼저 파룬궁에 '사교'라는 누명을 씌우고, 공안부에 이에 따라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모든 기공, 회도문, 심지어 정신병 환자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들을 모두 파룬궁에 뒤집어씌웠다.

다른 한면으로는 라간은 또 강택민이 질투로 이성을 잃어 파룬궁을 탄압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암암리에 무한 방송국장 조치진을 이용해, 악의로 파룬궁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영상(약칭 '무한 TV 방송국 조 영상')을 만들도록 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가짜 증거들을 6 시간 동안 열거했는데, 중앙이 파룬궁 단속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 영상을 방영했다. 이 영상은 감쪽같은 유언비어로 모든 사람을 속였고, 중공이 최종적으로 탄압을 결의하는 데 결정적 작용을 일으켰다. 라간도 이 때문에 중용됐다.

2002 년 67 세의 라간은 제 9 번째 상무위원으로 최고권력층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비집고 들어갔다. (원래는 7 명이었는데 라간을 위해 9 명으로 늘임).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은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7 월 22 일 전국적으로 반복해서 '무한 TV 방송국의 조 영상'을 방영했다. 중공은 각 기관, 기업, 학교, 회사에서 전체 구성원을 조직해 보라고 강요했고

거짓말로 민중이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도록 선동했다.

문화대혁명시기, 류소기를 탄압하려고 강청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류소기의 범죄 증거가 천지를 뒤엎는 듯했다. 아래 사람들은 중공의 의도에 따라 거짓말을 꾸미는 것이 정치판에 진출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 '무한 TV 방송국 조 영상'도 이런 작용을 일으켰다. 이렇게 라간, 조치진이 벼락출세하자 각 지역 매체, TV 방송국에서도 이를 모방해 파룬궁을 수련해 사망한 사람이 1400 명이라는 '1400 건의 사례'를 꾸며냈다.

사스(SARS), 무한 병독(신종 코로나)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해 하늘만큼 큰 죄악을 저질러 재난을 초래한 것이다. 중공은 바른 믿음을 믿고 수련하는 사람들을 20 년 넘게 박해했고 수많은 가정에 비참한 사건을 만들어냈으며, 수십만 명을 불법 체포해 감옥살이하게 했다. 확인된 박해로 사망한 수련자는 이미 4363 명이다. 이후에 중공은 비밀리에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 하고 장기이식을 통해 폭리를 도모했다. 이것은 세계 많은 국가와 정의로운 인사들의 비난을 받았다.◇

고대 로마의 3차 대전염병은 어떻게 철저히 사라졌는가?

기원 64 년, 로마 네로(尼祿) 황제는 황궁(皇宮)을 확대하기위해 일부러 로마성에 불을 지르고는 황궁과 황궁확대를 방해 하는것과 허물기 어려운 거민집을 모두 태워 버렸다. 그다음 기독교 신자에게 덮어씌웠으며, 기독교를 반사회 미신 사고 (迷信 邪教)로 포장 하였고 로마민중을 선

동해 박해에 참여하게 했다. 대량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해 당하고, 경기장에 던져 로마사람들의 환호속에서 세퍼드에게 무참히 물려 죽었다. 네로는 또 기독교 신자를 마른짚에 짝 묶어 화원에 놓고 불을 붙여 야밤의 횃불로 (3 면에 계속)



2020 년 3 월말까지 해외 탈당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된 "3 퇴"(당단대 탈퇴)성명 인수는 3.53 억을 초과 했다

(1 면의 계속) 많은 다른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을 죽일 수 있다고 하였다.

덕연의 콧속에서 발견한 루그더닌 포도상구균은 해로운 상구균을 죽일 수 있는 포도상구균이다.

세 번의 실험에서 덕연은 비록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지만, 미시하에서 그녀가 지닌 에너지는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일단 세균이 그녀의 콧속으로 다가온다면 루그더닌 포도상구균은 해로운 세균을 죽인다는 것을 설명했다. 덕연의 미시세계 보호막의 발생은 그녀가 연마하는 파룬궁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루그더닌 포도상구균은 에너지의 체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염병을 피하려면 좋은 처방이 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단체에서 연공 전에는 환자였지만 연공 후에 기적처럼 회복되는 사례는 아주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전의 현상과 이후의 결과만 볼 수 있었지 미시하에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만약 덕연의 몸에 있는 루그더닌 포도상구균이 파룬궁을 수련해서 생긴 것이라면 파룬궁 수련생 중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많은 사례 중에서, 미시하에서 정법(正法)을 수련해, 신체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재적 바른 에너지는 신체 미시하에서 체현된다. 예들 들면 그것은 바로 루그더닌 포도상구균이다.

미생물 중에는 슈퍼박테리아가 있으면 또 그것의 천적 루그더닌 포도상구균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그것의 천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무한 폐렴의 전염병 중에서 무한 세균의 일부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외웠고 증상은 바로 사라졌다. 아마 파룬궁 수련생 덕연의 세 번의 실험으로 우리는 환자가 진심으로 외웠을 때 미시세계에서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전투가 발생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

연변 박해 소식

도문시 파룬궁 수련생 책춘매(翟春梅)가 납치되다

2020년 3월 21일, 책춘매는 세인에게 진상자료를 전달할 때 국보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후에 불법으로 집 수색당하고, 경찰은 현금 5만여원을 강탈해 갔다. 책춘매와 아들은 모두 불구자여서,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한다. 아들은 초중을 다니며, 남편이 혼자서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강탈당한 돈은 그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다.

책춘매가 당시 입었던 옷은 모두 집으로 돌려 보냈지만 본인은 이미 불법으로 형사구속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갇혔는지는 경찰이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현재 책춘매는 행방불명이다. 가족은 여러차례 책춘매를 석방하고 강탈한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으나 결과가 없다. ◇

(2 면의 계속) 사용하게 했다.

요언을 믿고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 하는데 참여했기에 고대 로마제국은 잇따라 창궐한 대역병을 초래했다. 네로도 로마성 폭동에서도 망하던 중 자살했다.

후에 계승한 로마황제들도 여전히 네로의 기독교 신자에 대한 폭정을 이어갔고 기독교를 불법(非法)으로 정했다. 그들은 정교(正教)를 박해하면 국가, 인민과 자신에게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대역병중에서 고대 로마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등 많은 신에게 기도하든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들은 전염될까 두려워 병에 걸린 친인을 문밖에 끌고가 거리에 버렸다. 하지만 로마정부의 박해를 받고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오히려 거리에 나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사람을 진감시키는 것은 전염병은 오히려 이런 기독교 신자를 멀리 했다는 것이다. 후에

사람들은 점차 정신을 차렸다. 많은 고대 로마사람들은 바뀌어서 기독교를 신앙하기 시작했다. 로마 시민들은 잇따라 집에서 나와 기독교 신자 세바스찬의 성골(聖骨)을 공손하게 들고 대행진을 하고 경건하게 신에게 참회했다. 사람들의 경건한 마음은 신의 용서를 받았다. 그 때로부터 로마의 대역병이 철저히 사라졌다.

역사가 알려주다싶이 오늘날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고대 로마정부가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는 얼마나 같은가? 신은 그 한 단락의 역사로 오늘의 사람을 계시하셨다. 오늘의 파룬궁 수련생은 박해속에서 거리에 나가 전염병이 도는 공포속에서 사람들에게 재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념하여 3퇴(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퇴출)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것이다. ◇

민간 설화

붉은 눈의 돌사자 이야기

옛날에 어느 마을 사람들의 도덕은 이미 매우 나쁘게 변해 신은 이 마을을 멸망 시키려 했다. 한 보살은 마을 중에서 선심(善心)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구걸하는 사람 모습으로 변해 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 밥 한 끼 주지 않았다.

그가 마을 입구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보살은 앞으로 다가와 밥을 구걸했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는 밥 한 그릇밖에 없는데 반 그릇만 줄 수 있네. 남은 반 그릇은 부처님께 바쳐야 하네"라고 말했다. 이 보살은 가기 전에 마을 입구에 있는 돌사자를 가리키면서 그녀에게 "이 사자의 눈이 붉어지면 홍수가 날 것이니 당신은 재빨리 산으로 피하세요.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바로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온 마을 사람

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을뿐더러 "돌로 만든 사자의 눈이 어떻게 붉게 변하냐"고 그녀를 비웃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몇 명의 사람이 할머니를 놀리려고 일부러 붉은 염료로 돌사자의 눈에다 칠했다. 할머니는 돌사자의 눈이 붉어진 것을 보고 급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홍수가 나니까, 빨리 피하세요."라고 외쳤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머니는 모두 그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산으로 피했다. 결국, 홍수가 났고 할머니는 뛰면서 뒤돌아보았는데 물은 빠르게 불어나 삼시간에 온 마을을 물에 잠기게 했고 다시는 사람들의 웃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선님은 할머니가 보살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인연을 주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경고를 들은 후, 악념을 품고 할머니를 비웃고 놀렸으며 심지어 못된 장난으로 사자의 눈을 붉게 칠했다. 최후에 선님은 선한 사람을 구도 되게 했고 악념은 악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

과거 20여 년 동안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생들은 끊임 없이 진상을 널리 알리고 아홉 글자 길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널리 알리면서 사람들이 박해로부터 멀어지고 중국공산당에서 멀리하며 대원칙 앞에서 선량한 선택을 하면 재난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속담에 '한 올바름이 모든 그릇됨을 물리친다 (一正壓百邪)'는 말이 있다. '진선인(眞善忍)'은 가장 바른 것이며 대재난이 다가왔을 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믿는다면 재난이 멀어질 수 있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다. ◇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를 외우니 피부암이 완쾌

소팡은 전직 간호사였으나 나중에 가정 도우미 일을 했다. 2012년 소팡은 머리 왼쪽에 있는 검은 기미가 말랑해지면서 통증을 느꼈다. 외과 클리닉에서 기미 절제 수술을 했다. 조직 검사에서 기미에 암세포가 발견됐고 수술 후 상처는 줄곧 아물지 않아 짓무르고, 유액이 흘렀다. 성 신경외과 전문의사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 처방전을 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어느 날 소팡은 이전에 알고 있던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가 자신의 증상을 말했다. 수련생은 그녀에게 '파룬따파하오' 호신부를 주고 시간



이되면 호신부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했다.

소팡은 수련생이 말한 것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소팡은 그 대법 수련생에게 자신은 매일 호신부를 들고 매일 두 시간씩 외우고, 자

기 전에도 가슴에 놓고 외우면서 잔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에 머리가 아파서 깨어나 보니 대법 사부님(사부님의 법신)께서 그녀 머리를 누르고 무엇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단번에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이튿날 상처는 아물었다.

소팡은 머리카락을 헤집어 수련생에게 보여줬다. 그녀 머리 왼쪽에 손바닥만 한 두개골이 번들번들했는데 마치 두개골을 열고 인공 골판을 봉합한 것만 같았다. 정말 신기했다! ◇